

供與구역 단체장協 “반환지 무상양여하라”

협의체 구성 7개항 건의문 채택 중앙정부에 요구

미군 반환 공여구역이 있는 경기도내 20개 시장 군수들은 지난 4일 경기도 제2청사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중앙정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06.9.4 시행) 제정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임시회장 포천시장 박윤국) 총회에서 정부에 건의문을 통해 ▶공공사업 활용 발전공여구역 무상양여 ▶단계 발전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편성과 우선 반영 ▶반환공여구역 지원예산 특별회계 전환 ▶공여지 특별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환경기초시설 복구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 시장,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환경오염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 발전 정책을 감안해 내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제정된 특별

법 취지에 맞는 국가적 책임과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관련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하여 향후 청와대 등 관련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으로 인한 규제 때문에 지역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향후 중앙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또한 협의회 회장에 박윤국 포천시장, 부회장에 최영근 화성시장과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각각 선출했으며, 고문으로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김용서 수원시장을 추대했다.

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한 주한미군 주둔으로 개발이 제한돼 지역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정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직시하지 못하는 중앙정부를 더



미군 반환 공여구역이 있는 경기도내 20개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4일 경기도 2청사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시회장으로 박윤국 포천시장, 부회장에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최영근 화성시장, 고문으로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김용서 수원시장 등을 선출했다.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향후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포천시를 비롯한 의정부시와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9개 경기북부 시군과 수원시를 비롯한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광명시, 화성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양평군 등 경기남부 11개 시군 등 총 20개 시군 단체장

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2차례 정기모임과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미군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모두 51개소 6천377만4천348평으로 이중 5천172만1천673평이 반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은 84%에 해당하는 38개소 4천329만1천206평이 반환 대상이며 시군별로는 포천

시 4개소(460만평), 동두천시 6개소(1천229만평), 파주시 13곳(830만평), 양주시 2개소(348만평), 의정부시 9곳(178만평) 등이다.

경기도는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을 2008년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대학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SOC구축 등 모두 333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29
포천지역 CNG버스 운행 중단위기

기존 충전소 공급중단에 주민 충전소 건립반대

포천지역 천연가스 버스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포천지역에 사업장을 두고있는 천연가스 버스회사들은 지난 2월 그동안 버스연료 공급을 받아왔던 서울지역 가스충전소의 충전거부로 가스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월 서울지역 가스충전소는 서울지역 버스회사들이 자사버스의 충전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이유로 외지버스의 충전을 거부한 바 있다. 그동안 포천지역 버스회사들은 포천지역에는 버스에 가스를 공급하는 충전소가 없어 서울 도봉충전소와 계약을 맺고 연료를 공급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포천교통과 선진교통(주)은 서울지역 천연가스충전소와 이용계약을 6월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만료 시점까지 포천지역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들 회사는 포천시 설운동 부지 6천836㎡를 매입해 포천시에 충전소 건립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설운동 주민들은 "가스충전소를 주거지 근처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이 지역은 군부대 차량 통행으로 교통사고가 자주발생하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충전소 건립은 교통체증과 사고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충전소 건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스 충전소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기간만도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천지역 천연가스 버스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포천지역 천연가스버스는 포천-의정부 - 서울을 운행하는 포천교통 23대, 선진교통 27대 등 50여대 있으며 현재까지 도봉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다.

포천시는 올해 43대, 내년 143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설운동 가스충전소가 건립된다는 것을 알고 주민들은 가스충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포켓카드를 부착하고 지난 4월 포천시와 경기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5월2일에는 포천시청 앞에서 설운동 주민 50여명이 참여하는 '충전소 건립반대' 시위를 가진 바 있다.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면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압가스충전소 유치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포천시와 경기도에 보낸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포천시 설운동 70-3.4번지에 가스충전소를 운수업체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출한 허가서류를 법적인 규정만으로 타당성 조사를 주민의견 수렴없이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포천시는 위험물시설을 설치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은 "버스가스 충전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주거지 근처에 설치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하고 "설운동 여단입구는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사고가 빈발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아울러 "가스충전소 건립 예정지는 주거밀집 지역일 뿐만 아니라 작전차량이 수시로 통행하는 곳으로 국방부 작전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인접지역에서 생활하는 300세대 1천여명의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심을 지버릴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가스충전소 유치 결사반대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해 포천시청에 제출했지만 포천시는 공익을 위해 국가시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면서 "위험물취급소를 마을 코앞에 설립하면서 주민들에게 일언반구 협의나 통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있는 버스회사들에게도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도록 하고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까지 포천지역에 버스 가스 충전소가 없어 인근 시군 충전소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인근 시군 충전소들도 천연가스 버스가 증가하면서 자체 가스버스 충전을 위해 타 지역 버스충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가스충전소는 도시가스 관로가 통과하는 지역에 건립해야 한다. 현재 포천지역은 축석고개부터 선단동까지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된 점을 감안해 충전소 설치장소를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가스충전소 안전성에 관해 9일 설운동 마을회관에서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김기동 박사를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6·25참전유공자 화랑무공훈장 수여

이종덕 · 김종호 참전용사 영예의 훈장 받아



포천시는 지난 1일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하여 최기종 6·25참전 유공자회장과 및 관내 보훈단체장, 시민,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조례회를 갖고 6.25참전 유공자인 소흘읍 이종덕씨와 군내면 좌의리 김종호씨 등 2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육군본부로부터 전달받아 수여했다.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헌신한 6.25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참석자 모두가 나라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했다. 또한 포천시는 계속적으로 육군본부와 연계하여 6.25참전용사 훈장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어버이날 즐거운 잔치 마련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주관, 어르신 축제 한마당

포천시는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축제하마당'을 종합체육관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어 어르신들은 이날 하루만큼은 모든 시름을 털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관내 업체인 성진식품(대표 이인숙)에서 유과 100BOX(600만원 상당)를 기증하여 어르신들의 축제를 한층 풍성하게 했다.

신명나는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난타공연, 문화예술봉사단의 공연 등 흥겨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식후에 가진 치어리더댄스, 스포츠 댄스 공연을 통해 분위기가 고조됐다.

또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한 명랑 운동회와 도전 기념식을 진행해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뛰며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노인복지 기자 및 장한 아버지, 효행자 등 5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어르신 이마용, 건강발관리, 건강검진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단순한 행사가 아닌 어르신들의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7년 한전포천지점 고압단가(소흘·내촌) 공사 협력업체

성실시공 · 실력배양 · 주인의식

취급공사

- 공장
- 병원
- 가로등
- APT
- 상가
- 인테리어
- 빌딩
- 호텔
- 학교
- 기계소방
- 전기소방
- 신호등 및 기타



최 두 열 대표이사

열린경영으로 기업의 최고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고은종합전기(주)

■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 전화 : (031)542-9771 ~ 4 / Fax : (031)542-1115